

잊혀진 화가 진환을 소환하다

타계70주기 앞두고 '진환 평전' 출간
서양화·드로잉·수필·편지 등 수록
이중섭·이쾌대와 동인으로 활동
아들 진경우 화백
"아버지 작품 다양하게 조명됐으면"



1940년께 도쿄 미술공예학원 재직시절의 진환 화백

지난 2013년 광주 은암미술관에서는 조금은 낯선 작가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그 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전북 고향 출신 진환(본명 진기용·1913~1951) 화백의 회고전이였다. 이쾌대·이중섭과 동인으로 활동하고, 홍익대 미대 창립 교수를 지냈던 그는 6·25 전쟁 중 38세의 젊은 나이에 제자의 오인 사격으로 황망히 세상을 떠난 비운의 화가였다.

'고향, 몽환적 풍경'을 타이틀로 열린 기획전의 전시작은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들 진경우 화백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가 태어난 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이니,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추억은 없지만 고향집에 걸려 있던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자란 그는 그림들을 늘 마음 속에 품고 있었고, 화가가 됐다. 진 화백은 "내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기운, 내적으로 형성된 환상성과 몽환적, 초현실적인 느낌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화단에서 잊혀졌던 '망각의 화가' 진환을 본격적으로 조명할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진환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2년에 걸쳐 준비한 '진환 평전-되찾은 한국 근대미술사의 고리(살림 펴냄)'다. 무엇보다 내년 타계 70주기를 앞두고 발간된 진환의 작품 세계와 삶을 살펴보고, 한국근대미술의 한 부분을 복원할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책이다. 황정수 근대미술연구가, 안태연 미술사가, 최재원 독립 큐레이터 등 5명의 필진이 참여한 책에는

서양화·드로잉·동시화 등 진 화백의 모든 작품과 그가 쓴 수필, 편지, 유학 시절 성적표, 편지와 신문 기사 등 자료가 실렸다. 1950년 한성일보에 기고한 '소' 에세이 등 이번에 처음 발굴됐거나 첫 공개된 것들도 눈에 띈다.

고창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의 반대에도 21세 때 일본 유학을 떠나 일본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자유롭고 진보적 성향의 그룹전에 꾸준히 참여했고, 1941년 도쿄에서 이쾌대·이중섭 등



우기

ACC,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직업체험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드론, 멀티사운드를 소재로 한 청소년 문화예술 직업체험교육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은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함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ACC 문화정보원에서 열리며 점단장비를

활용해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과정은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키네틱아티스트'는 과학원리에 예술을 접목시켜 보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니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안무, 명화 만들기 등을 통해 AI를 체험해보고 예술적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과 함께 '조선신미술가협회'를 창립했다. 그는 일제말기의 암흑기에 신미술가협회 등에 참가하며 민족미술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작가이기도 했다. 황토색이 주조를 이루는 그의 작품은 자연주의적이고 향토적 서정성을 짙게 담아냈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소를 소재로한 것으로 민족의 현실을 반영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이쾌대가 진환에게 보낸 다섯통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쾌대는 해방 직후 고향에 있는 진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어코 고대하던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감격의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원컨대 형이여! 하루바삐 상경하여 큰 힘 합쳐 주소서"라고 쓰기도 했다. 진환의 친구였던 시인 서정주는 "여름이면 향시 총농부의 밀짚모자 차림으로 빙그레한 어린애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나타났던 진환"이라고 묘사했다.

작품활동을 하면서 부친이 설립한 무장농업학교의 교장으로 일했던 그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 동요집을 제작하는 일에도 몰두하며 다양한 작품을 그렸다. 큰아들 철우의 이름이 표지에 적힌 그림책에는 '쌍방울', '말타기' 등 동시와 함께 아가자기한 그림들을 함께 실어 지극한 자식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대한 첫 조명 작업은 사후 32년만인 1983년,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 유작전이였다.

"아버님의 작품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거나 평가된 적이 없어 이번에 나온 책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최근 근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버님의 작품이 한국 근대미술사의 공백을 메우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타계 70주기인 2021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님의 작품을 조명할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진경우 화백은 "무엇보다 근대미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극단 얼-아리,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

극단 얼-아리가 지난해 연극 '그래도, 따뜻했던'에 이어 올해도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차지했다.

최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 제34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얼-아리의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가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희곡상, 연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연극제 시 예선대회인 이번 연극제는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원광연)가 주최했으며 극단 좋은 친구들, 사람사이, 시민, 진달

래피네, 까치놀, 얼-아리 등 총 6팀이 참가했다.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는 '공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연극이 사라졌습니다'를 전제로 공연을 준비하는 작가와 배우,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밖에 우수연기상은 박규상·윤미란(목마른 물고기)·이선미(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가 수상했고 신인연기상은 이승학(파수꾼)이 받았다.

최우수작품상(광주시장상)을 수상한 극단 얼-아리는 오는 9월5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무대에 참가하게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선대 한국화 동문 '아시아 영 아트 페스티벌'

18일까지 금호갤러리

한국화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020아시아 영 아트 페스티벌(Asia Young Art Festival, 이하 아시아프)이 오는 1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아시아프는 조선대 한국화 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 2004년 발족했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 실험을 모색한 작품이다

고승 작가는 식사하는 모습 등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며 김민서 작가는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소재로 한 '평온' 시리즈를 전시한다. 김수경 작가는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인물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윤성민 작가는 불상을 소재로 선맛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대현 작가는 다채로운 인간 군상을 화폭에 담았



조성숙 작 '살아가는 것' 시리즈

으며 이지수 작가는 팝아트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유쾌한 느낌의 인물화를 전시하고 있다.

그밖에 최대홍·조정숙·최소애·홍지희 작가가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설화·전설을 킬러콘텐츠로... AI 문화콘텐츠 포럼

18일 전일빌딩245

AI 기술을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와 접목해 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하는 AI 문화콘텐츠 포럼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렁이와 결혼한 광주 복춘처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광주시가 AI 산업 선도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AI 기술을 문화콘텐츠와 접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제인 '지렁이와 결혼한 광주 복춘처녀'는 후백제 시조 견훤의 설화에서 차용했으며 설화나 신화, 전설 등을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이날 포럼은 미디어아트 1세대 작가인 정영훈씨가 '문화+AI 그리고 광주'로 기조발제를 하고 최

원오 광주교육대 교수가 '광주 메인스토리 제작 방안', 이윤선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 '남도설화 파일럿 사업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김영균 텔스타호텔 파트너가 'AI Culture&Life Platform', 최인호 건국대 교수가 'VR+ 인공지능'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는 김춘식(동신대 교수), 강동현(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김근태(한국교토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박찬용(원광디지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의 소통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12차례 진행된 '아문도시 이슈포럼'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원포럼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